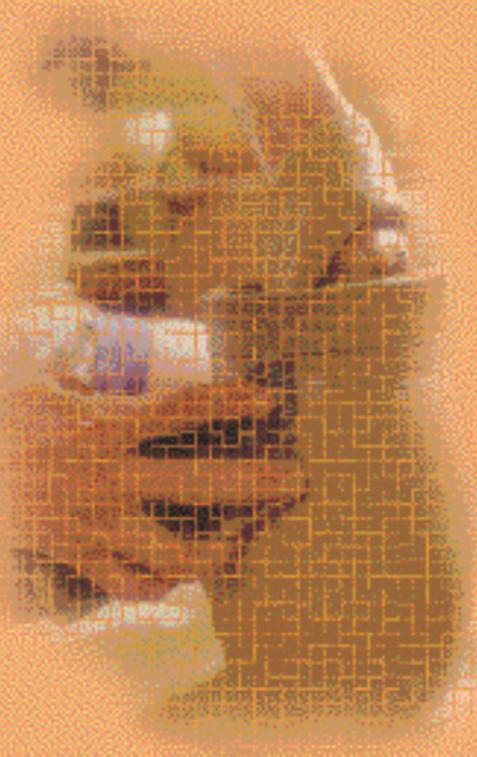


전통의 맥을 잇는 으뜸이

윤용열
조병주
이종덕
나기완
김차봉
김시영





전통목조건축, 의정부 윤용열

목조 한옥만 100여 채 똑딱



일제 치하인 1939년 남양주에서
출생한 윤용열은 경기도박이 목수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해야 했던 탓에
변변히 정규교육 한번 받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건축문화를 좇느라 우리의 건축기술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윤용열은 여전히 그 맥을 잃지 않고 굳세게 이어왔다

이 제 어느 도시 어느 곳을 가나 우리는 빌딩 숲에 아파트, 콘크리트 건축들에 뒤덮여 살고 있다. 우리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 전통 건축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지도 꽤 오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전통 건축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이며 인간에게 이로운 지가 알려지며 새로이 전통 건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건축문화를 좇느라 우리의 건축기술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맥을 잃지 않고 굳세게 이어온 고마운 사람이 있다.

윤용열, 우리 시대 몇 안되는 전통 건축 전문 목수이다. 일제 치하인 1939년 남양주에서 출생한 윤용열은 포천에서 성장하고 현재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토박이 목수다. 어린 시절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해야 했던 탓에 그는 변변히 정규교육 한 번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그의 손재주를 눈여겨 본 주위 분들의 권유로 포천의 백공열 목수에게서 목수 일을 배우게 되었다. 농사를 짓는 틈틈이 목수일을 하기 10여년. 그의 나이 26살의 혈기 왕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하는 목수일로는 큰 목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본격적인 목수 수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당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던 조원재의 문하에 입문하게 된다. 조원재의 친구였던 황목수



‘적은 이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찾아라’는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고 생활하게 된다



그가 독립하여 맡은 첫공사는 강화도의 고려 왕궁지 삼문공사였다
이 공사는 본래 다른 목수에게 맡겨졌으나 그 목수가 자신이 없어 윤용열을 추천한 것이었다

의 추천으로 조원재를 만나 ‘대패질’ 시험을 치르고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 10여 년의 그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조원

재 밑에서는 ‘떡통’을 잡는 것에서부터 다시 목수 수업이 시작되었다. 조원재의 수업 방식은 실무작업을 통하여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다. 그의 문하에 입문하면서 곧바로 비원 담장 보수공사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목수 수업을 하게 된다.

조원재로부터의 목수 수업은 스승의 사망으로 2년 만에 끝나게 되었다. 2년 여의 짧은 기간의 수련이었지만 그는 평생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당시 ‘목수, 자 끝에서 속이는 것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목수들의 농간이 심하였는데 조원재는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이때부터 윤용열은 ‘적은 이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찾아라’는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고 생활하게 된다. 스승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나이 28살에 독립을 하게 된



다. 그가 독립하여 맡은 첫 공사는 강화도의 고려 왕궁지 삼문공사였다. 이 공사는 본래 다른 목수에게 맡겨졌으나 그 목수가 자신이 없어 운용열을 추천한 것이었다. 처음 맡은 큰 공사인 만큼 줄담배를 피워가며 밤낮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공사를 마쳤을 때 그의 첫 작품은 그의 기술력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후 강화도 철종 생가의 해체 보수 공사를 맡는 등 그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공사를 의뢰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목수 생활은 비교적 순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 수 있었던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찰 공사를 할 때나 문화재를 보수할 때 항상 여러 불자들과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한다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을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7년 전 설악산의 영시암 공사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영시암 공사과정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해야 하는 불운을 당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는 곧바로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하였다. 퇴원을 만류하는 담당 의사를 매일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겠다는 약속으로 설득하여 수술한 지 12일만에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일을 하는 열성을 보였다. 이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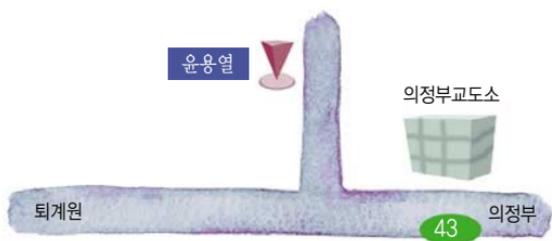
이제 전국의 왕릉·사찰·향교의
신축보수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산의 공사현장에서 속초의 병원을 매일 왕복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무사히 공기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는 45년 간을 우리의 전통 건축물에만 몰두한 외곬 인생을 살고 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시멘트를 사용한 건물이 많아질 때 잠시 그도 전통 건축보다는 쉽고, 수입도 좋은 일반 목수 일로 전환할까 하는 유혹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전통 건축의 신비함과 멋에 매료되어 결국은 하던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서울의 이화장, 경기도 강화의 고려 왕궁지, 충남의 유관순 사당, 온양 박물관, 경북의 고은사, 강원도의 단종대왕 능침 등 전국의 왕릉·향교·사찰의 건축물 신축 보수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윤용열은 이성계가 왕이 되어 돌아왔고 그의 아들 태종과 만났다는 전좌마을을 복원하여 그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남은 인생을 바칠 작정이다. 우리 전통 건축을 연구하는 학원을 설립하여 자신만의 건축기술을 후학들에게 전수하여 우리 전통 건축의 맥을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몇천 년을 이어오고 이어갈 우리의 자랑스런 건축문화가 그의 용이진 손 끝에 달려 있다.



집

0351-841-9022



쇄납연주의 달인, 파주 조병주

쇄납가락과 함께 평생을



50년 이상을 쇄납과 함께 한
그의 요즘 바람은
어릴 때부터 온갖 시련을 겪으며
터득한 기술을
후세에 전파하는 것이다



그가 평생 동안 연마한 연주 기술을 탄현초등학교 농악대에 전수하기 시작한 것은 4년 전이었다. 금산리에서 탄현초등학교가 위치한 축현리까지 8km를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무보수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음악과 함께 해왔다. 파종기 때부터 수확기까지 일하는 곳에선 농요가 흘러넘쳤고 중요한 날마다 풍요를 빌며 농악이 떠들썩했다. 그럴 때마다 제일 앞서 빠리리리~ 우리의 흥을 돋우던 쇠납.

쇠납은 목관악기로 호적(胡笛) 혹은 태평소(太平簫)라고도 하고, 속칭 날라리라고 하는데 농악에서 흥을 돋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이다. 파주시 탄현면 탄현초등학교에 가면 세련된 연주 솜씨는 아니지만 매일 쇠납 연주를 들을 수 있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 8명의 초등학생들이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쇠납 연주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쇠납연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쇠납연주의 달인 조병주 옹. 70평생을 쇠납과 함께 해온 조병주는 파주 토박이로 거의 일생을 탄현면 금산리에서 살아왔다. 그가 평생 동안 연마한 연주 기술을 탄현초등학교 농악대에 전수하기 시작한 것은 4년 전이었다. 금산리에서 탄현초등학교가 위치한 축현리까지 8km를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무보수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그 결과 탄현초등학교 농악대는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 수 있었다. 최근에는 금산리에서 아예 탄현초등학교가 있는 축현리로 이사해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조병주가 쇠납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과 관계

조병주의 쇠납에 대한 애착은 남달라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당숙 어른들이 쇠납을 부숴뜨리면 그날 밤을 새워가며 싸리나무를 깎아 다시 쇠납을 만들어 불곤 하였다



가 있다. 그의 부모는 9남매를 두었으나 어릴 때 6명이 죽고 3명밖에 생존하지 못하였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조병주는 15세 때 서둘러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결혼한 다음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곧이어 그의 어린 신부도 복막염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때부터 조병주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기 때문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집안 어른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농사를 지어 생활하면서 생활고를 잇는 방편으로 만나게 된 것이 쇠납이었다. 쇠납의 소리에 매료된 후에는 직접 쇠납을 만들어 불기 시작하였다.

남달리 손재주가 많았던 조병주는 싸리나무로 관을 만들어 구멍을 뚫고 낫쇠를 두드려 동팔랑과 조롱목을 만들어 쇠납을 완성하였다. 당시 집안 어른들은 쇠납은 쌍놈이나 광대가 부는 것이라 하여 쇠납을 불지 못하게 쇠납의 관을 부러뜨리곤 하였다. 조병주의 쇠납에 대한 애착은 남달라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당숙 어른들이 쇠납을 부숴뜨리면 그날 밤을 새워가며 싸리나무를 깎아 다시 쇠납을 만들어 불곤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병주의 쇠납 제작 기술은 더욱 숙련되었다. 집안



요즘 그의 바램은 어릴 때부터 혼자 힘으로 온갖 시련을 겪으며 쇠납을 만들고, 연주해서 터득한 기술을 후세에 전파하는 것이다



어른들의 반대가 하도 심하여 조병주는 나무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쇠납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하루종일 쇠납을 연주하다가 날이 저물면 나무 한 짝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이러기를 4~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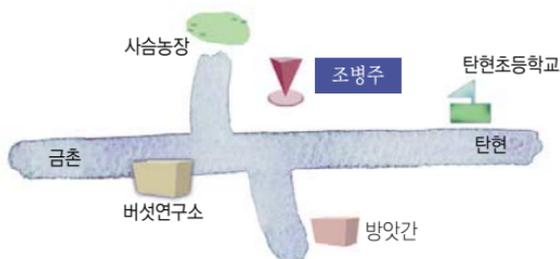
그의 쇠납에 대한 애착을 꺾을 수 없는 것을 안 집안 어른들은 조병주의 쇠납 연주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21살부터 조병주는 집안 어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쇠납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몇년 뒤 파주에서는 조병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쇠납 연주의 달인이 되었다. 그후 군에 입대하여 이발병으로 근무하면서 익힌 이발기술로 제대 후 서울에서 잠시 이발소를 열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이발소가 쉬는 날이면 쇠납을 들고 주변 공원에 나가 쇠납을 불어 주위사람들의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답답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그는 다시 고향인 금산리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다.

조병주의 쇠납 연주 소문을 듣고 잔치집이나 굿판 등에서 어김없이 그를 초청하였다. 다시 고향에 정착하면서 그는 금산리 농요보존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기도 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전통민속놀이에서 금산리 농요를 가지고 다수 출연하였다. 쇠납 연주와 제작에 일생을 바친 그의 생애는 이미 언론보도 및 방송출연을 통하여 꽤 널리 알려진 편이다.

요즘 그의 바램은 어릴 때부터 혼자 힘으로 온갖 시련을 겪으며 쇠납을 만들고, 연주해서 터득한 기술을 후세에 전파하는 것이다. 50년 이상을 쇠납과 함께 한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금촌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인 그의 손자 귀영이에게 쇠납 연주를 지도하고, 제작 기법을 전수하는 것이 그의 남은 조그마한 소망이기도 하다. 또한 그의 집에 작업장을 차려 수작업으로 쇠납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평생을 함께해 온 소중한 쇠납 가락 못지않게 그의 열정 또한 길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조병주의 흥겨운 가락에 취해본다.



▶찾아가기

서울역 혹은 구파발에서 금촌행 버스를 타고 금촌에 하차. 탄현방면 버스(15분)로 갈아탄 후 버섯연구소앞 하차. 사슴농장 방향으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주변볼거리

통일전망대



집

0348-942-6410



유기 디자이너, 시흥 이종덕

실험정신이 강한 젊은 유기장



3년간 직장생활을 한 후
1989년에는 두레공방이라는
전통공예품 판매점을 열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디자인 감각이 뛰어났던 그는
촛대받이와 몸통이 분리되는 촛대를 디자인해서
큰 반향을 얻게 된다



인간문화재 이봉주가 운영하는 안양유기(현 납청유기)에 입사하면서 유기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유기의 은은한 색깔에 매료된 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유기의 제작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곤 했다

날 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네 할머니들은 유기그릇을 꺼내 반질반질 윤을 내었다.

유기란 놋그릇을 말한다. 유기 중에서도 방짜(方字)유기는 쇳물을 녹여 바대기라 불리는 바둑알처럼 둥글납작한 쇳덩이를 만들어, 11인인 한 조가 되어 불에 달구어가면서 두들겨 만드는 그릇으로 상당한 노력이 따른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통 공예인 방짜 유기를 계승, 발전시키는 젊은 유기장(鑄器匠)이 시흥에 살고 있다. 충남 부여가 고향인 이종덕은 열 살 때 서울로 이사하여 생활하다가 군 제대 후 친구 부친인 인간문화재 이봉주가 운영하는 안양유기(현 납청유기)에 사무직으로 입사하면서 유기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유기의 은은한 색깔에 매료된 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유기의 제작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곤 했다.

3년간 직장생활을 한 후 1989년에는 두레공방이라는 전통공예품 판매점을 열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디자인 감각이 뛰어났던 그는 쇳물반이와 몸통이 분리되는 촛대를 디자인해서 큰 반향을 얻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직접 유기를 만들겠다고 결심, 유기제작 업체를 인수하여 두레산업이라는 유기공장을 차리게 되었다. 두레산업을 설립한 초창기 6개월간은 제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여 적자를 감수하



면서 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안양유기재직시 그의 재질을 눈여겨본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속악기를 제작·판매하는 대전의 대한민속국악사 김천식 사장은 그에게 현금으로 물건값을 지급하고, 무이자로 자금

을 빌려주는 등 현재까지도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기제작에 뛰어들지 14년이란 길지 않은 경력을 지닌 이종덕이지만 그의 유기제작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물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의 처남의 도움을 받아 음향측정기 등 각종 첨단계기를 구입하여 유기제작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감각을 개발하기 위하여 뒤늦게 유한대학 산업디자인과에 입학해 2년 동안 낮에는 유기를 제





작하고 밤에는 디자인 공부를 하여 수석졸업을 하기도 했다. 1998년에는 경기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 대상과 입선을 휩쓸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여 디자인 공부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디자인을 공부하며 우리 대학의 디자인 교육이 서양 디자인 위주로 진행되어 전통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전통 문양을 멋진 디자인으로 개발하려는 꿈을 지니고 있다.

사람이 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두레산업을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도 매일 적자를 감수하고 있어, 그의 부인이 한지공예를 부업으로 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행히 생산방식의 효율화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영업비를 감축하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어, 앞으로 5년 후에는 적자를 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994~1996년의 3년 동안 전승공예대전 방짜유기부문에서 장려상과 입선을 한 경력과 전통유기에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한 그이지만 경력이 14년밖에 안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제품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힘이 빠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굳이 경력을 부풀리거나 속이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그의 제품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찾아오리라고 믿고 있다.

두레산업에 가면 어떤 모양의 유기라도, 설령 단 한 개만을 주문한다



해도 반드시 만들어 준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남지 않는 일이지만 새로운 제품의 제작을 통하여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단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덕은 단지 유기를 만드는 장인일 뿐만 아니라 수집가이기도 하다. 옛것이 퇴색되고 잊혀져가는 현실 속에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틈나는 대로 유기 수집에 노력하고 있다. 주위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도 유기를 수백 점 수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 무상공급하고, 유기박물관을 건립하는 초등학교에 자신이 수집한 유기를 기증하는 등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주위에 전파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이종덕의 소박한 소망은 두레산업의 운영이 정상화 된 후, 그가 수집한 유기를 전시할 전시장을 마련하는 것과 더욱 유기제작에 힘을 쏟아 한국에서, 더 나아가 세계에서 최고의 유기 장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종덕의 실험정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찾아가기**

개봉역에서 일반버스 140번, 좌석버스 39번을 타고 비석거리(중림닙시터) 하차,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 **주변불거리**

소전미술관, 무지내동 태봉(향토유적 64호), 신한 주씨 3세 적선비



두레산업
FAX

02-619-2977
02-689-2511



전통화살의 명장, 부친 나기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죽시(竹矢)만한 게 없지요



전북 임실이 고향인 나기완은
15세 때 전주에 살고 있는 형님 댁에 놀러갔다가
그 옆집에서 화살 만드는
김용훈을 만나게 된다
김용훈의 활 제작과정을 처음 보곤
대나무로 만든 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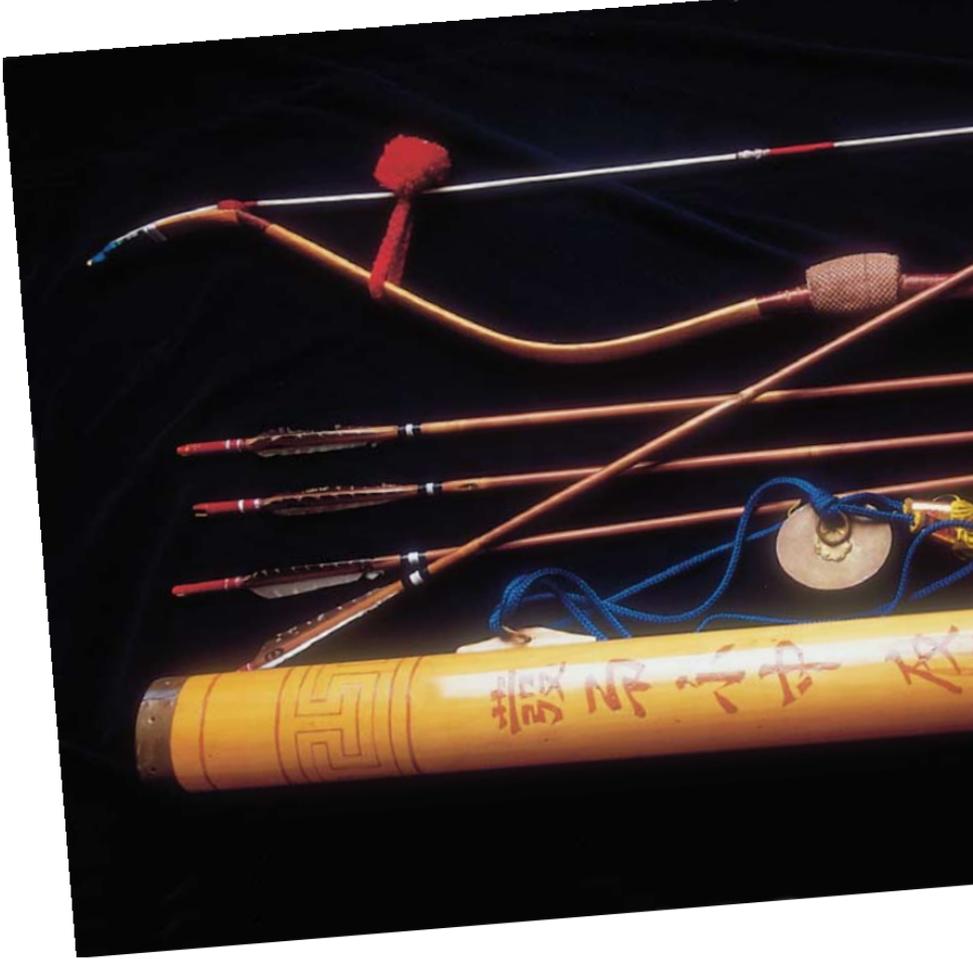
3년 동안 조명제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화살 만드는 공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화살대 굽기'와 '화살대 잡기'를 철저히 배웠다



이런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화살의 청아한 소리와 '탕탕' 과녁을 튕기는 힘찬 소리에 산이 깨어나는 듯하다. 양궁에 비할 수 없는 국궁만의 자량이 그 속에 들어 있다.

예로부터 활을 만드는 사람을 궁인(弓人)이라 하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시인(矢人)이라 하며 이를 합해 궁시장(弓矢匠)이라 한다. 이제 우리의 활과 화살은 심신수련용으로 애호가들로부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부천의 활은 전국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부천에 살고 있는 160년의 활 제작의 전통을 이어받은 김박영(중요무형문화재 47호)의 존재 때문이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속담처럼 좋은 활이 있으면 좋은 화살이 있는 법. 부천에는 활뿐만 아니라 27년간 화살을 만들어 온 시장(矢匠) 나기완이 살고 있다.

전북 임실이 고향인 나기완은 15세 때 전주에 살고 있는 형님 댁에 놀러갔다가 그 옆집에서 화살 만드는 김용훈을 만나게 된다. 조명제(중요무형문화재 47호)의 제자였던 김용훈의 활 제작과정을 처음 보곤 대나무로 만든 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어, 방학 때가 되면 어김없이 전주의 형님 댁에 가서 이웃집 김용훈의 화살 제작과정을 어깨 너머로 배우곤 하였다. 화살에 대한 관심을 주체하지 못하였던 그는 17세 때에는 아예 전주로 전학을 하여 형님 댁에 생활하면서 학교 수업이 파하면 곧바로 김용훈의 집에서 화살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2년 여의 세월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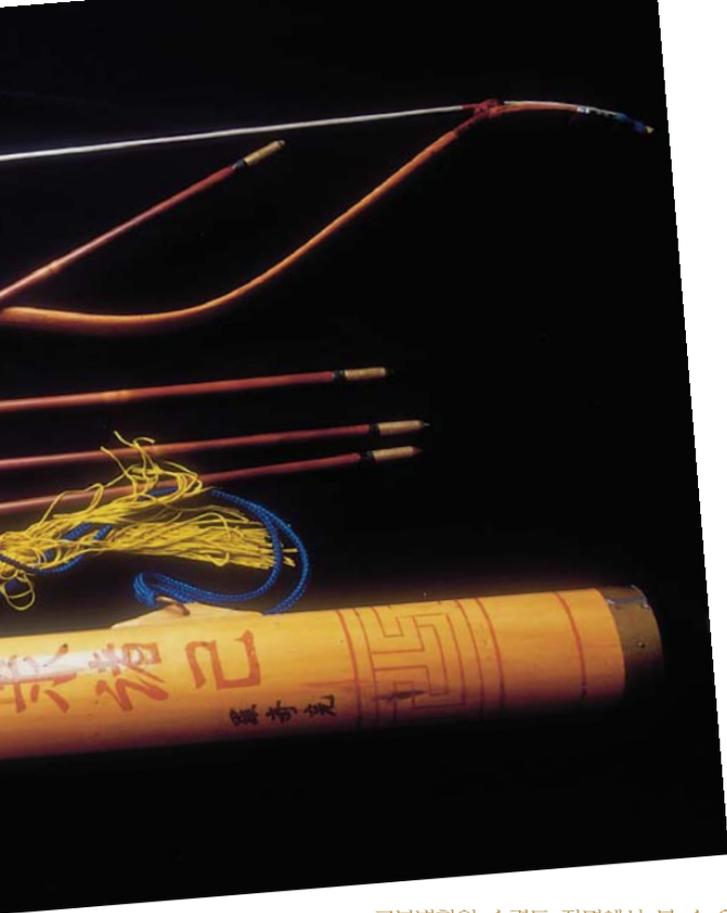


주에서 화살을 만들다가, 김용훈의 추천으로 그의 스승이었던 조명제가 살고 있는 마산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죽시장의 길을 걷게 된다. 3년 동안 조명제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화살 만드는 공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화살대 굽기’와 ‘화살대 잡기’를 철저히 배웠다. ‘화살 하나 하나에 혼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조명제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의 화살을 만들기 위하여 150회의 공정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3년간 마산에서 힘겨운 수련을 쌓은 후 ‘거미 줄 따르듯’ 명궁을 만드는 부천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당시 부천에는 김박영의 스승이었던 김장환이 시립도서관 심곡별관 위에서 성무정(聖武亭)이라는 활터를 운영하면서 활을 만들고 있었다.

명궁과 명시(名矢)의 조화 속에서 나기완의 화살은 더욱 진가를 발휘하였다. 그는 부천에 정착한 이후 매일 오후 4~6시에는 어김없이 활쏘기를 하고 있다. 죽시 제작은 항상 화로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을 상하기 쉽다. 운동 겸 자신이 만든 화살의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활쏘기를 시작하였던 것이 그 솜씨가 어느덧 명궁의 경지에 이르러 1986년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서는 15발 모두를 명중시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요즘도 매년 몇차례 열리는 전국 대회에 참가해 좋은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요즘 그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1992년을 고비로 카본화살이 대량으



고분벽화의 수렵도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활과 화살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쓰여져왔다

로 공급되면서 대나무로 만든 죽시의 판매가 저조해졌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카본화살은 7천 원인데 비하여 150회의 공정을 거치는 죽시는 1만7천 원으로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현재 국궁에 소요되는 화살의 70~80%를 카본화살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무정에서 '죽시공방'을 운영하면서 한때는 4~5명의 직원을 두고 화살을 제작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아 죽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월 100개 정도의 주문량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그의 아내가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부천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하여 현

재 죽시를 만드는 곳은 전국에 3~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는 죽시의 맥을 잃지 않으려면 연습용으로는 카본화살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국궁대회에서는 반드시 전통의 죽시만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죽시에 대한 애정과 열정 하나만으로 28년 간을 한눈 팔지 않고 죽시제작에만 몰두하였다. 나기완은 죽시의 제작뿐만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죽시를 홍보하고 널리 보급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리는 ‘궁시장(弓矢匠) 자료전시회’에 참여하여 전통 활과 화살을 전시하고 있다. 그의 죽시 작품은 현재 경기도 박물관과 행주산성 기념관에도 전시되어 있을 정도이다.

또한 일본에도 소문이 퍼져 시제품을 일본에 보내,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올해 10월에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석축 화살을 재현해 출품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흐름이 선정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이들 명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작은 과문이 되길 희망해본다.



▶ 찾아가기

경인선 전철 부천 남부역에서 내려서 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 위쪽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성무정(聖武亭)이 보인다. 이곳에 죽시궁방이 있다.



▶ 볼거리

부천중앙공원



죽시궁방

032-613-6159





전통칠기 명장, 구리 김차봉

칠기밖에 난 몰라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담자락이
내려다보이는 구리시 갈매동 협동마을
소규모 가내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마을 깊숙이 산중턱에
아천전통옷칠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김차봉은 1956년 열여섯의 나이로 경남 통영 나전칠기 기술원에 입소, 중요무형문화재인 고 김봉룡 옹에게 칠기기술을 사사받았다
그 이후 44년 동안 전통칠기의 외길을 걸어왔다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담자락이 내려다보이는 구리시 갈매동 협동 마을, 소규모 가내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마을 깊숙이 산중턱에 '아천전통옷칠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을 처음 보았을 땐 연구소라는 이름이 무색하리만치 영세한 외관에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한 작업장 안으로 한발 들어서면 곳곳에 배여 있는 칠 냄새와 작업중인 목기들, 그리고 축축한 칠 기건조장 등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과연 으뜸연구소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된다. 이곳이 바로 전통칠기의 기술보존과 전승발전만 고집해온 김차봉 으뜸이의 연구소이다.

김차봉은 1956년 열여섯의 나이로 경남 통영 나전칠기 기술원에 입소, 중요무형문화재인 고 김봉룡 옹에게 칠기기술을 사사받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44년 동안 전통칠기의 외길을 걸어온 장인이다.

60년대 이후 서구적인 산업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류에 따라 전통 공예기술이 외면당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김차봉은 칠기기술을 지켜왔으며 한발 더 나아가 고품격의 나전칠기와 옷칠을 병합한 현대감각에 맞는 각종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화공재료의 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천연도료만을 개발하여 생산한 작품이 3건의 특허를 받는 등 칠기분야의 최고경지를 자랑하고 있다. 83년에는 아세아예술제 대한민국 전통공예부문 동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



“외국인들은 우리 칠기를 보면 갖고 싶어 난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것을 외면하고 수백 수천 만원짜리 외제
 그릇만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도 사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 이 훌륭한 전통의 맥이 끊길 지경입니다”



으며 전국 규모의 국내대회에서도 6회나 입상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또
 한 20여 회에 걸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왕성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은 우리 칠기를 보면 갖고 싶어 난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것을 외면하고 수백 수천 만원짜리 외제그릇만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도 사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 이 훌륭한 전통의 맥이 끊길 지경입니다. 아들이 내 뒤를 이어 전수증인데 솔직히 나는 반대요. 평생 배고프고 알아주지 않는 일을 왜 합니까.” 일반의 무관심 속에서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하는 칠기 명장의 하소연은 듣는 이의 낯을 뜨겁게 만든다. 실제로 그의 말을 입증하듯 그와 함께 일해왔던 동료들은 모두 이 일에서 떠난 상태이다.

“고집이 없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저도 오늘까지 이것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면 장인 정신을 철저히 심어준 스승 고 김태희 옹을 떠올린다. 김태희 옹은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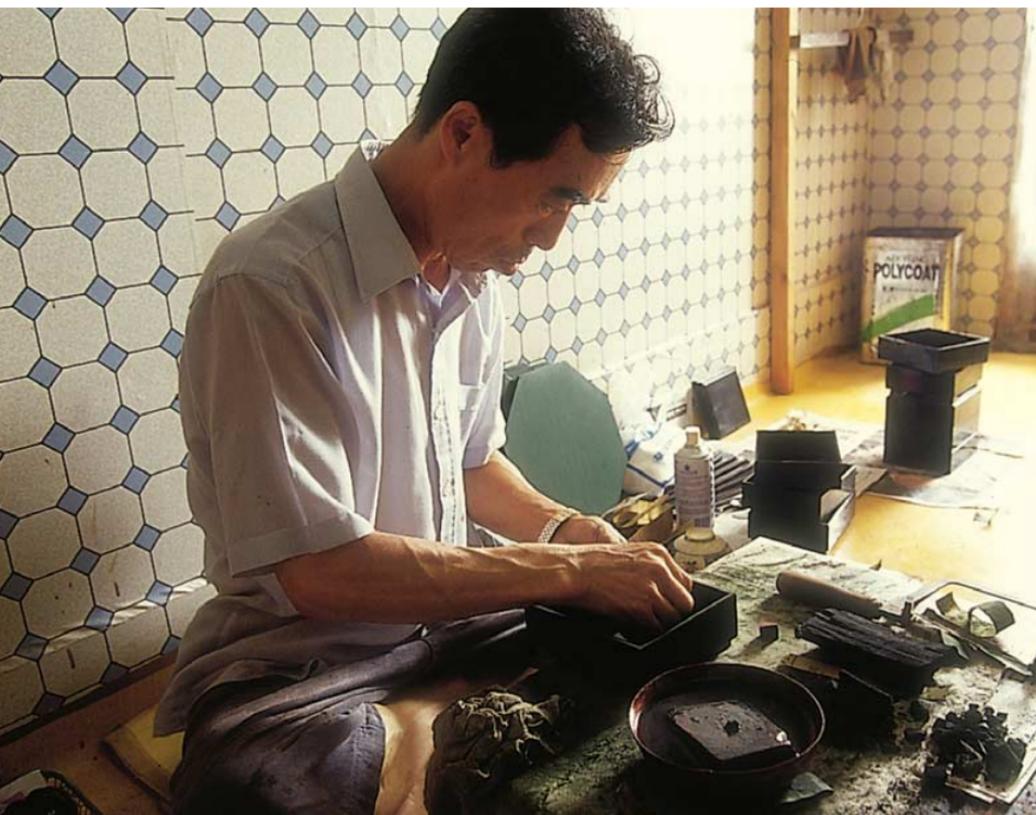


옷칠의 기법이라든가 전통칠기를 현대인에 적합한 생활용기에 접목하는 방법 등 칠기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가르침은 장인의 기본자세, 그의 표현을 빌자면 ‘고집불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 말이 아닌 30세 문하생의 자격으로 입문한 이후 10여 년간 동고동락하며 몸으로 터득한 교훈이다.

“작은 찻잔 하나도 완성품이 되기까지는 수십 번 칠을 입힙니다. 한번 칠한 뒤 건조시킬 때도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조절해야 제대로 마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칠기는 수십 년을 써도 변함이 없어요.”

칠기 잔에 탄 따끈한 유자차, 칠기 찻숟갈로 저어 마시는 그윽한 향, 순우리 것임에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불행한 한국인에게 꼭 권하고 싶은 품위있는 우리네 정취이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제자도 키워 옷칠 기술도 전수해야 하고, 보다 현대적 실용성을 가미한 전통칠기를 대량보급하여 대중화도 시켜야





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나전칠기의 우수성도 알려 문화상품으로 더 많이 팔아야 하고, 공예미술관도 설립하고……”

그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한편으로 성성한 흰머리와 깊은 주름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 **찾아가기**

교문사거리나 망우동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갈매동 협동마을 입구에서 하차. 마을 입구에서 도보로 15분 가량 들어가면 산비탈에 본 연구소가 보인다.



▶ **주변볼거리**

동구릉, 태릉, 이 일대의 배밭



아천전통유품칠연구소

0346-572-0520





고려흑자 재현, 가평 김시영

고려의 오묘한 흑빛을 찾아서



태백산맥 종주등반을 하던 그가
강원도 깊은 산중 화전민터에서
섬광처럼 빛나는 까만 빛의
도자기 파편들을 본 것이
흑자에 빠져든 출발이었다



10년 세월은 자신의 비밀이 된 흙들의 배합비율과 불의 세기와 시간 그리고 딸 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흑자 빛깔의 차이를 일일이 비교 기록하는 지리한 작업이었다

고려 청자나 백자 이야기는 들어보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고려흑자’ 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여기 육백년 만에 명맥이 끊긴 고려흑자의 재현에 뛰어들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 도예인 김시영. 그는 10여 년간 실패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흑자제조기술을 습득, 국내외에 독보적인 존재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학교 산악부 시절인 79년 여름, 태백산맥 중주등반을 하던 그가 강원도 깊은 산중 화전민터에서 섬광처럼 빛나는 까만 빛의 도자기 파편들을 본 것이 흑자에 빠져든 출발이었다.

“어려서부터 먹음 갈며 검은 색에 친숙했었죠. 그래서 자기편을 보는 순간 흑색의 아름다움과 오묘함을 도자기에 표출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생활마저 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택한 사람답지 않게 담담하게 동기를 털어놓는다. 청자나 백자와는 달리 완전히 명맥이 끊긴 흑자연구는 무모하기조차 했다. 그는 흑자에 쓰이는 유약이 청자에 비해 산화철 성분이 더 많아야 한다는 단서만을 가지고 10여 년을



이제는 흑자 본래의 장엄하고 은은한 격조 높은 빛과 자태를 재현하는데 성공, 전통도에특별전 및 일본기옥도에전 등 각종 국내외 전시회 추천작가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불가마 옆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매달렸다. 그의 10년 세월은 고령토 · 장식 · 규석 · 사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비밀이 된 흙들의 배합비율과 불의 세기와 시간 그리고 땀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흑자 빛깔의 차이를 일일이 비교 기록하는 지리한 작업이었다.

뜻밖의 멋진 흑빛이 나와 며칠씩 잠을 이룰 수 없었는가 하면 한번 만든 작품인데도 도저히 같은 흑빛이 나오지 않을 때는 좌절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흑자를 현대과학과 접목시키기 위해 세라믹과 대학원에 지원하는가 하면 국립공업연구소 도자기 시험소에서 과학적으로 흙과 불을 다루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제는 흑자 본래의 장엄하고 은은한 격조 높은 빛과 자태를 재현하는데 성공, 전통도에특별전 및 일본기옥도에전 등 각종 국내외 전시회 추천작가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흑자를 더 애용하는 일본에서 그의 도자기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언젠가 다기를 일본에 수출했는데 그곳 세관에서 6개월간 반입시키지 않은 적이 있었죠. 제 흑자에서 발하는 기이한 흑빛을 의심했던 겁니





다. 혹시 유해한 광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지 별별 조사를 다했다고 합니다. 반입에 시간이 걸려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일본인들도 만들 수 없는 저만의 흑빛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처럼 누구든지 가평요의 작은 전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흑자가 뿜어내는 다양한 색과 광채에 압도당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누구나 흑빛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삶에서 흙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이다. 학창시절의 이야기는 온통 산에 관한 것이다. 지금의 아내도 산악부에서 만났고, 알프스 마터호른 등반 등 세계 유수의 산을 등반한 제법 알려진 산악인이기도 하다. 요즘도 그는 이틀에 한번 가평의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 가평 흙을 연구하기 위해 흙 채취를 목적으로 한 ‘도자 등산’이다. 주말엔 두 딸과 산행을 한다. 산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담겨 있다. 아버지를 이어 흑자를 굶겠다는 딸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 도예는 여성에게는 벽찰 만큼 많은 힘이 소요되는 중노동이기 때문이다.

김시영이 가족과 즐겨찾는 산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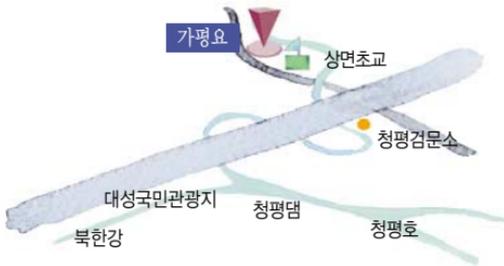


평의 명지산이다. 반나절 정도면 가능한 일정에다가 산이 우람하고 넓어 마치 흑자와 같은 느낌의 산이기 때문이다. 가평의 한적한 산골짜기 가평요에서 발하는 불꽃이 그의 가족의 의욕과 신념처럼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흑자의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흑자가 청자나 백자 수준으로 보급되어 대중과 친근한 생활자기로 정착하는 것.

“아무리 이상이 높아도 그것만을 향해 나간다면 정복할 수 있겠죠? 마치 산에 오를 때와 같은 심정입니다.”

평범하고 편한 삶을 뒤로 하고 외롭고 고달픈 길을 스스로 선택한 젊은 장인. 단절된 문화를 재현하고 발전시키는데 인생을 건 검은 도자기를 굽는 산사나이의 어깨에서 우리의 21세기가 빛나는 듯하다.



▶찾아가기

기차를 탈 경우 청량리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청평역에서 하차, 시외버스를 탈 경우 청평 혹은 청평검문소에서 내린다. 청평에서 현리 방향의 버스를 타고 상면초등학교 앞에서 내려 10분 정도 걷는다. 차를 이용할 경우 경춘국도를 따라가다 청평검문소에서 좌회전, 현리방향으로 8킬로미터 들어가 상면초등학교를 지나 우회전하면 가평요가 나온다.



▶주변볼거리

대성국민관광지, 청평호반관광지, 조종천계곡의 안전유원지와 산장국민관광단지, 운악산, 명지산, 용추계곡, 축령산



가평요

0356-584-2542

